

'KIA 믿을맨 어디로 갔나' 조상우 부진 뼈아프다



KIA타이거즈 투수 조상우가 연일 무너지고 있다. '믿을맨'으로 팀 승리를 지켜줘야 하는 보직이지만, 최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KIA는 지난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베어스와의 주중 12전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무승부로 팀은 7연패 탈출에도 실패했다. 특히 아쉬웠던 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날 '대투수' 양현종은 5.2이닝 1실점으로 잘 버텼다. 이후 7회까지 KIA는 2-1로 앞섰다. 하지만 8회에 무너지며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8회초 조상우는 등판 직후 상대 정수빈에게 2루타를 맞았다. 후속타자 정유찬은 희생번트를 만들었고, 적어도 아웃카운트 1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다. 처리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마음이 급했다. 조상우가 1루로 보낸 송구가 베이스 뒤로 넘어간 것. 결국 그 사이 정수빈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동점이 됐다. 이후 KIA는 11회 무사 만루 찬스를 잡았으나,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의 문제는 불펜이다. 이 기간 불리했던 경기를 추격하거나 뒤집는 상황이 자주 나왔다. 그러나 불펜이 무너지며 재차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조상우의 실점이 뼈아팠다.

조상우는 지난 22일 LG전 추가 2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다. 23일에는 4-4 동점이면 연장 10회에 등판해 투런 홈런을 맞고 패전 투수가 됐다. 25·27일 롯데전에서도 결정적인 점수를 내줬다. 30일 두산전까지 최근 5경기 등판에서 모두 실점을 면치 못했다.

최근 8경기로 날려봐도 무려 7경기에서 모두 점수를 헌납했다. 더욱이 이 기간 1이닝을 채웠던 것도 20일 NC전과 25일 롯데전 단 2경

8경기 중 7경기 실점

1이닝 소화도 버거워

'홀드 1위' 타이틀 무색

체력 극복 등 반등해야

기쁜이었다. 필승조 투수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조상우 단 한 명의 잘못으로 팀이 연패에 빠진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제몫을 해내지 못한 게 큰 영향이었던 건 부정할 수 없다.

조상우는 올 시즌 KIA 불펜의 핵심 자원이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던 장현식이 LG로 이적하면서 이 자리를 조상우가 채웠다. 이를 위해 KIA는 키움에 2026 신인 드래프트 1·4라운드 지명권에 현금 10억원까지 건넸다. 사실상 지난해 전력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 시즌 시작 전 KIA는 '절대 1강'으로 꼽히기도 했다.

문제는 조상우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즌 개막전부터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지만, 불안한 모습이 많았다. 6월에는 11경기에 출전해 단 한 번의 실점만 기록하며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7월 다시 급락했다.

31일 경기 전 기준 조상우의 평균자책점은 5.02. 홀드 리그 1위(24개)의 타이틀이 무색해질 정도의 수치다. 더욱이 조상우는 올 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선다. 'FA로이드'로 불리는 성적

항상도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현실이다.

결국 심리적인 문제와 체력 부담이 있다는 점 때문에 3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범호 감독은 그에게 10일간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정상 컨디션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가 1군에 다시 올라올 시기에는 올라와 김도영 또한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펜 정상화가 중요하다.

결국 조상우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팀의 순위 상승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조상우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남부대 이해주,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 '우승'

결승서 김가림 제압...대학 사상 최초 '금' 획득 영예

남부대학교 복싱부 이해주(무도경호학과 2년)가 '제7회 경찰청장기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부대 역사상 이 대회 우승은 이해주가 처음이다.

이해주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영주 대한복싱훈련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51kg급에 출전. 결승에서 김가림(대구복싱마스터)을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해주는 이번 대회 8강에서 백유니(비스트박스)를, 4강에서 심문영(안산화랑복싱)을 차례로 꺾은 뒤 결승에서도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으로 이해주는 경찰청 복싱단 채용 면접 자격을 얻게 됐으며, 향후 정식 채용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해주는 "끝까지 믿어주시 감독님과 항상 곁에서 응원해준 팀원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더 성장한 모습



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승 남부대 복싱부 감독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하며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한 이해주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이 선수 개인은 물론 남부대 복싱부 전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 호평

광주시체육회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 파크골프장 환경 개선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산구 첨단 대성파크골프장에 콜링포그(물안개), 이동식 스프링클러, 방방 휴게실 등을 설치해 폭염 속에서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이용객들의 은열 질환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코스 출입구에 콜링포그를 설치해 주변 온도를 낮췄다. 또 꼼꼼한 잔디 관리를 위해 휴장 시간에도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최상의 코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게 공간도 재단장했다. 휴식과 안전을 위해 휴게실 냉방 설치와 냉수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가 정제되는 휴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도 세심하게 살폈다.

전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매년 더워지는 기상 상황에 대비해 체육시설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폭염과 폭설 등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김경민 선방' 팀 K리그, 쿠팡시리즈 뉴캐슬 1-0 완파

전반 36분 김진규 결승골 폭발 후반 골키퍼 맹활약 등 빛나

K리그 대표 선수들이 합류한 '팀 K리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승리를 거뒀다.

김관중 감독(울산HD 감독)과 이정호 수석코치(광주FC 감독)가 이끄는 팀 K리그는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에디 하우 감독이 지휘하는 뉴캐슬을 1-0으로 제압했다.

팀 K리그는 K리그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프로축구 올스타적인 팀이다. 2022년 시작해 4회째인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매년 참가해 온 팀 K리그는 2023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3-2로 누른 이후 2년 만에 승리했다. 2022년엔 토트넘(잉글랜드)에 3-6패, 지난해엔 토트넘에 3-4로 진 바 있다.

이날 팀 K리그는 4-4-2 포메이션을 기동했다. 모마(안양)와 전진우(전북)가 최전방에 섰다. 김진규(전북)와 이동경(김천)은 양쪽 측면에서 지원했다. 이창민(제주)과 김동현(강원)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수비진은 변준수(광주)·이정원(포항)·박진섭(전북)·토마스(안양)로 구성됐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지난 시즌 EPL 득점 2위(23골)의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가 부상으로 투여에 참가하지 못한 뉴캐슬에선 헨스리 고든과 안토니 엘링가, 빌 오수라가 공격 선봉에 섰다. 골키퍼 닐 포프와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 조 윌록, 수비수 저말 러셀스 등도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 초반엔 뉴캐슬의 강한 전방 압박에 팀 K리그가 고전하는 양상이었으나 팀 K리그도 점차 호흡을 맞춰나갔다.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팀 K리그 김진규가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보

전반 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모파가 빠른 공을 받은 이동경이 페널티 아크에서 낮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이후 이창민의 몇 차례 증거리 슈팅이 빗나가거나 포프의 정면으로 가는 등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팀 K리그는 전반 36분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렸다. 역시 상황에서 이동경이 중앙을 돌파하며 왼쪽으로 패스를 건넸고, 김진규가 골 지역 왼쪽에서 뉴캐슬 선수들 사이로 날린 오른발 슈팅이 선제 결승골로 연결됐다.

전반전을 유리하게 마친 팀 K리그는 선발 멤버 중 모마와 어정원을 뺀 9명을 대거 교체해 후반전에 나섰다. 세징야(대구)와 광주의 핵심 아사니 등 외국인 위주의 팀이 꾸려졌고, 골키퍼는 김경민(광주)으로 바뀌었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채 후반전을 맞이한 뉴캐슬은 한결 활발해진 오수라의 움직임을 앞세워 반격을 꾀했다.

후반전 초반에는 김경민의 선방이 빛났다. 후반 5분 엘랑가의 스루패스에 이은 골 지역 왼쪽 오수

라의 슈팅이 김경민의 선방에 맞았고, 후반 13분 다시 오수라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날린 강슛도 김경민이 잡아냈다.

뉴캐슬은 후반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다음 달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과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에 대비해 조금씩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체력을 안배했다.

K리그2 수월 상승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뉴캐슬로 전적 이적해 이번 한국 투어에 동참한 2007년 생 공격수 박승수는 후반 37분 오수라 대신 투입돼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치렀다.

얼마 전까지 '안방'이었던 수원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를 밟은 박승수는 후반 39분 왼쪽 측면을 휘젓는 모습으로 뉴캐슬 K리그 팬을 가리키지 않고 경기 중 가장 큰 환호성을 자아냈다. 끝내 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패배를 떠안은 뉴캐슬은 후반 추가 시간 일찍이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며 하우 감독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